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Korea

조 용 완(Yong-Wan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현황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
| 2. 연구방법 | 2.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
| II. 이론적 배경 | IV. 현 단계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한계 |
| 1.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위한 근거 | 1. 공공도서관 영역의 한계 |
| 2. 국외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관련 선행사례 분석 | 2. 민간도서관 영역의 한계 |
|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2007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백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외국의 이주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개 공공도서관과 5개 민간도서관 대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이주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정보서비스, 다문화사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Korea, where the number of immigrants reaches one million. To do this, the case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were investigated and persons in charge who work in 10 public libraries and 5 private libraries serving immigrants in Korea were interviewed. Also, research articles, newspapers and related websites are utilized.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we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Immigrants,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Information Servic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ps2all@pusan.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독일, 중동 산유국 등 다른 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광부, 간호사, 건설근로자를 송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이루 말 못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며 그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해낸 것은 물론이고 당시 한국경제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그 당시와 다른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747,4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외국인 증가 현상은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과 중국동포의 지속적 유입,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유입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유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²⁾

과거 독일에서,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 거주 이주민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사일을 할 젊은 사람이 사라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농촌지역에 시집와서 우리나라 농업유지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3D업종의 인력난과 농촌지역의 결혼문제, 자녀출산 문제 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우리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UN과 UNESCO 등 국제기구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규모로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1)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서울 : 법무부, 2006), pp.354-358.

2)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282천여명, 미국 103천여명, 일본 39천여명, 베트남과 필리핀이 각각 38천여명 태국 34천여명, 인도네시아와 대만이 각각 25천여명, 몽골 22천여명, 그 외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10-15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비전문취업, 배우자, 사증면제/관광, 산업연수, 단기종합, 연수취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목적 근로자와 결혼을 통한 이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계서.

3)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실천문학, 제74호(2004 여름), pp.228-230. 윤인진, 장래 우리나라 인력난 문제 해결 및 재외동포 인력 활용방안(서울 : 법무부, 2005), p.7.

4) OECD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등도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 가입 10

그렇다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들은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기본인 한국어에 대한 습득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 본성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떠나온 모국에 대한 정보도 원하게 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정기간 일한 뒤에는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므로 그 사이의 지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국사회에 대한 정보도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휴일도 제대로 쉼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며 통하지 않는 언어와 크게 차이나는 문화 등으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결혼이주민들 역시 가사와 자녀양육, 취업 또는 농사일, 그리고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필요한 정보입수에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이주민들의 경우는 교통수단의 제약과 더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부재 등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도시지역 거주 이주민에 비해 더욱 열악한 정보환경에 처해 있다.⁵⁾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음에도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사회적인 정보제공 기관인 도서관 등의 무관심은 여전한 상태로 있어 이주민들의 정보빈곤은 개선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도서관들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는지 검토하여 그 특징적인 측면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나타난 특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주민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들의 이주민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그룹과 민간도서관 그룹으로 나누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담당자와 민간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종교단체 책임자와 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총 16명 중 9명과의 인터뷰는 사

주년 기념 방한 강연), 문화일보 2006년 9월 21일, <권오규 재경 G20회의 강조... “고령화 대응 이민 개방 필요”>, 국민일보 2006년 11월 20일.

5) 농림부의 용역조사결과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은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8%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이어 ‘1~3명’이라는 응답이 35.8%, ‘4~6명’은 10.8%, ‘10명 이상’은 13.5% 차례로 나타났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이민자 셋 중 하나 / “한국생활 도움주는 이웃 없어요”>,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16일.

전 전화접촉을 통해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그 외 나머지 인터뷰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사정으로 또는 연구자와의 지역적 거리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전자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도서관에서 생산된 자료집과 내부자료, 각급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물 그리고 여러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보도한 언론기사들도 널리 활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11개 공공도서관과 5개의 민간도서관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먼저 공공도서관에는 이주노동자와 사할린 귀환동포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북구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연수도서관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나주공공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고흥평생학습관, 목포공공도서관, 장흥공공도서관, 서울의 용산도서관, 강원지역의 인제도서관, 전북지역의 순창공공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도서관으로는 인천지역의 '드림도서관', 부천지역의 '꼬마도서관', 대전지역의 '이주노동자 이동도서관', 대구지역의 '외국인노동자 도서관', 부산지역의 '민들레 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 도서관의 선정은 국내 언론 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서 2001년 이후에 발간된 전국 규모의 일간지를 비롯, <전남일보>, <강원일보>와 같은 지역 일간지, <순창신문>과 같은 지역신문,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언론 기사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었거나 도서관 담당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사례가 언급된 도서관들은 개별적 연락이나 도서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⁶⁾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위한 근거

정보의 공공적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관인 도서관은 자국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자신들의 정체성 유지, 모국 정착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1931년 출판 이후 전 세계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지침이 되어온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의 5법칙(Five laws of library science) 중 두 번째인 "Books are for all"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인종, 언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서관의 자료

6)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현황파악을 위해 먼저 장애인 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이주민 분야는 아직 조사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7. 1. 31),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2006 도서관연감>도 검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은 새로운 이용자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서와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 제정된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와 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에도 도서관의 이주민 봉사를 위한 근거가 탄탄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선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봉사는 나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소수언어 사용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봉사와 자료이용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문화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⁷⁾

그리고 공공도서관들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으로 개발된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공공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모국문화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해당집단 출신의 도서관 직원 채용이나 그들의 문화와 전통, 지식을 반영하는 장서구비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독서진흥과 문명퇴치, 환경적응을 위해 교사, 부모, 기타 관련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⁸⁾

한편 세계 각 국의 도서관 현장이나 도서관 종사자의 윤리선언 등에도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948년에 제정된 미국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출생(origin), 배경(background), 관점(views) 등의 이유로 도서관 이용 권리가 부정되거나 축소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고,⁹⁾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이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등과 같이 이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¹⁰⁾

2. 국외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관련 선행사례 분석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의 현황을 비교할 준거로써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온 여러 나라

7)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http://www.ifla.org/VII/s8/unesco/eng.htm>), 2007년 2월 20일 접속.

8) Philip Gill,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23-49.

9) Library Bill of Rights(<http://www.ala.org/ala/oif/statementspols/statementsif/librarybillrights.htm>), 2007년 2월 20일 접속.

10)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orla.or.kr/data/reference/moral.asp>). 2007년 2월 20일 접속.

의 도서관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국가들의 공공도서관과 국가도서관이 이민자를 위해 벌이고 있는 서비스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같다.

Evans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도서관들이 동유럽에서 새로이 이주해온 노동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Glasgow시의 Gorbals Library and Real Learning Centre가 러시아, 폴란드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의 가족들과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50대의 PC를 제공하고 있으며, National Library of Scotland의 상호대차 부서에서 비영어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을 통해 비영어권 이주민들의 원활한 자료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¹¹⁾

Oder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Toronto Public Library(TPL) 시스템 전반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히 캐나다 외부 출생자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TPL의 여러 분관들이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TPL은 현재 40개국의 언어로 된 장서들과 다양한 언어로 된 신문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34개 언어에 대해서는 자료담당자들이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분관들을 위해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¹²⁾

King과 Virgilio는 각각 미국 Tennessee주 Memphis-Shelby County Public Library & Information Center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InfoBU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독립된 분관 기능을 수행하는 InfoBUS는 영어와 이주민들의 모국어 장서 외에도 무선 인터넷 접속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바코드 스캐너 등을 구비하여 자료대출 이외도 인터넷 검색과 전자도서 제공, 컴퓨터 활용 교육,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영어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이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다.¹³⁾¹⁴⁾

Naismith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인종적 편견, 물리적 고립 등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장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California주 Fresno County Public Library가 1962년부터 시작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사례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이은 예산 감축 법안들로 인해 이동도서관 정류장 대폭 축소, 전임 담당자의 파트타임 대체 등 농장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1개월에 1번 45분 정도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주말이나 저녁시간이 아닌 낮시

11) Jill Evans, "From a Distance," *Information Scotland*, Vol.4, No.3(2006), pp.4-4.

12) Norman Oder, "Growing into a Changing City," *Library Journal*, Vol.128, Issue.10(2003), pp.40-42.

13) Bobby King, "This Is Not Your Father's Bookmobile," *Library Journal*, Vol.125, Issue.10(2000), pp.14-17.

14) Damone Virgilio,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okmobiles & Outreach Services*, Vol.6, No.2 (2003), pp.7-15.

간대의 순회 일정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장주들의 비협조와 불법체류자를 배려하지 못하게 하는 표준화된 전산 업무환경, 상대적으로 높은 자료분실률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있지만 사서들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확보와 관련 법안의 제정을 유도하여 농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⁵⁾

Gonzales는 미국 North Carolina주에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과 소말리아, 베트남, 보스니아 출신 난민들의 유입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Greensboro Public Library, Cumberland County Public Library 등 주내 공공도서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민자와 난민들이 갈수록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동화되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과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하였다.¹⁶⁾

Somerville은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문화간 융화와 이주민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주민에 대한 봉사는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일치함을 상기시키며 도서관이 이주민들을 배려하면 향후 정착한 이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도서관 홍보, 다국어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다중언어(multilingual) 장서,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중점 사업, 새로운 정보기술의 소개 등과 같이 도서관이 이주민 봉사에서 할 수 있는 7개의 주요 단계에 대해 제시하였다.¹⁷⁾

Hosking과 Attenborough는 공공도서관이 이주 노동자와 난민 등 소수인종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의 취업과 직업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교육과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국 잉글랜드 동부지역 공공도서관의 "LearnEast"라는 사업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관들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T 교육, 영어숙달 교육, 이력서 및 취업지원서 양식 작성 교육, 취업사이트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⁸⁾

Diaz는 미국 Florida주에서 멕시코 등 중미(Central America) 출신의 많은 이민자들과 농장 이주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Tampa-Hillsborough County Public Library의 Ruskin 분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이주민 서비스의 요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은 지역 내에서 이미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며, 언어나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덜한 이주민 어린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를 도서관으로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참여자 수, 문서화된 평가

15) Rachael Naismith, "Library Service to Migrant Farm Workers," *Library Journal*, Vol.114, Issue.4(1989), pp.52-55.

16) Lena Gonzales, "Public Libraries Reach out to New North Carolinians: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Immigrants and Refugees," *North Carolina Libraries*, Vol.57, No.1(1999), pp.4-7.

17) Mary R. Somerville, "Global Is Local," *Library Journal*, Vol.120, Issue.3(1995), pp.131-133.

18) Mike Hosking & Colin Attenborough, "Learning On-target in the East," *Public Library Journal*, Vol.19, Issue.1 (2004), pp.7-9.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 언어구사가 가능한 직원이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⁹⁾

Buck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미국 Virginia주의 한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시민권 자격시험 및 신청서 작성 지원, 스페인어 키보드 장착 PC 제공, 이동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불법체류 이주민 이더라도 도서관 카드 발급을 제외한 관내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⁰⁾

이상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의 도서관들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비스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연구에서 언급된 도서관들에서는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 이외에도 해당국가 언어 외에 이주민 출신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와 다중언어로 이루어진 자료 대출서비스, 컴퓨터와 인터넷을 구비하여 모국과 정착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용교육 제공,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 학력검정 시험을 위한 준비, 주요 이주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통한 다중언어 참고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주민들은 거주 지역사회와 정착국가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모국 귀환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자신들의 고유한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선행경험을 가진 국외 도서관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내 각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실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현황

1.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빈곤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는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계의 움직임은 '민중의 대학'으로써 제 위치를 잡아가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고려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범주에는 아직 그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

19) Rodrigo Diaz, "Developing Library Outreach Programs for Migrant Farm Workers," *Florida Libraries*, Vol. 48, Issue.1(2005), pp.12-14.

20) Nancy Buck, "Public Libraries and Immigrants-Tradition!," *Virginia Libraries*, Vol.52, No.2(2006), pp.4-6.

인 상황은 이처럼 미흡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과 결혼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지역, 사할린 귀국 동포 노인들이 정착한 지역 등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선구적으로 이주민 서비스를 개척하고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도서관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인천지역과 전라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도서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의 개괄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주민대상 정보서비스 현황

연번	도서관	한글교실	문화교실	정보화교육	이동도서관	이주민 언어 장서	비고
1	전남 나주공공도서관	○	○	○	일반시민대상		한국교육개발원 공모를 통한 문화교실 예산지원
2	전남 고흥평생교육관	○					한글교재 제작(베트남어+한국어), 이주민 전용 교통수단(승합차) 제공
3	전남 구례공공도서관	○					
4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	○		일반시민대상		'07년 목포지역 알기 문화 프로그램 추진 예정
5	전남 장흥공공도서관	○			일반시민대상		
6	인천 북구도서관	○	○		일반시민대상		한국외국인선교회와 공동으로 진행
7	인천 중앙도서관	○	○	○	일반시민대상		현재 모든 프로그램 일시적 중단 상태
8	인천 연수도서관		○				사할린동포복지회관과 공동 진행. 올해 거동불편 동포노인 책 읽어주기 사업계획
9	서울 용산도서관	○			일반시민대상	영어동화책 코너	
10	강원 인제도서관	○					수업일에 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지원(이주민전용)
11	전북 순창도서관	○	○				교육청 사업으로 도서관은 장소만 제공

가. 한글교실

한글교실은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며 대중적인 이주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이 이주민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교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원활한 정보입수와 활용에 있어 필수적인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에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한글교실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한글교실 수업은 공공도서관 내 회의실이나 평생교육 강의실 등에서 보통 주2회로 열렸지만 기간은 6개월, 10개월, 1년 등 다양한 단위로 존재하였다. 수업은 급격평생교육봉사단²¹⁾ 소속 퇴직 교직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일반

21)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퇴직 전문인력(교사, 전문직,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

퇴직 평교사(나주, 목포, 고흥)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었고 도서관 직원들은 열람실 업무나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글교실이나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다.

2003년부터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흥공공도서관에는 비교적 많은 규모인 약 40-50명 정도의 결혼이주 여성들(주로 필리핀과 일본 출신)이 참여하여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소속 퇴직 교직원 2명과 2명의 자원봉사자 총 4명이 수업을 이끌고 있다.²²⁾

고흥평생교육관²³⁾은 다른 도서관의 경우와 달리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2백여명 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가족들을 위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된 자체 한글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한글교실 교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간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있는 특징적인 면을 보였다.²⁴⁾

그리고 목포공공도서관의 한글교실은 한글을 익히지 못한 지역 노인들과 함께 이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글교실이 종료될 시기에는 지역노인과 이주민들의 글을 모아 자체 문집을 발간하고 있었다.

나. 문화교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거주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한글교실이 가장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과 지역사회의 역사, 지리, 경제, 문화, 풍습, 생활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같이 제공하는 문화교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주공공도서관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한글교육 뿐만 아니라 나주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한국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지역거주 노인들 외에 약 25명의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였고 강사로는 퇴직 초등교사, 향토사학자, 컴퓨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²⁵⁾

해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평생교육 자원봉사 모임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조직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옥, 공공도서관에서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p.18-20.

22) 장흥공공도서관 평생교육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5시 30분.

23) 고흥평생교육관은 고흥사회교육관과 고흥공공도서관이 통합을 통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평생교육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4) 고흥평생교육관이 제작한 <한국어공부(베트남어↔한국어)>(2007)는 지역에 거주하던 베트남어에 능통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 숫자, 나이, 색깔, 재는 단위, 교통수단과 장소, 살림 등으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흥평생교육관장와의 인터뷰, 2007. 2. 28 오후 4시 00분 - 4시 40분, 고흥평생교육관장실.

25) 나주공공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7. 2. 28 오전 11시 00분 - 11시 30분, 나주공공도서관 사무실.

현재 인천 남동공단에만 약 1만5천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북구도서관은 2006년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국민선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교실'은 남동공단 지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약 40명이 참여하여 2006년 9월-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한글교육, 안전교육, 인간관계형성, 생활정보, 문화체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제결혼 이민자가정 사회정착 프로그램'에는 인근 부평구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여성 약 2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도서관 이용교육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9월-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담당하였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²⁶⁾²⁷⁾

인천 중앙도서관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의 공단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전통문화, 한국사회 전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외국인 한글문화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여기에는 러시아(한인2세 포함), 동남아, 중국(조선족) 등의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참여하였다.²⁸⁾²⁹⁾

인천 연수도서관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과 공동으로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근 지역의 사할린동포회관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노인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올타리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³⁰⁾ 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이 프로그램 중 일부인 종이공예, 일본어 강좌에 사할린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³¹⁾³²⁾

끝으로 전북 순창교육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2000년부터 지역의 한글 미해독 노인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수리 기초과정을 교육하는 '순창여성한글학교'사업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부터 시작된 '온누리안 가족 보듬기 순창골 한마음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창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학교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³³⁾³⁴⁾

26) 인천북구도서관 평생교육 담당자와의 전자메일 인터뷰, 2007. 3. 2.

27) 인천북구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pl.or.kr>). 2007년 3월 2일 접속.

28) 인천 중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4시 00분.

29) <중앙도서관 한글, 문화교실>, 인천일보 2002년 8월 23일, <중앙도서관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인천일보 2002년 10월 22일, <컬처 & 라이프 - 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인천일보 2003년 5월 26일.

30) 사할린 동포는 외국인인 아니지만 수십년간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노년기에 다시 완전히 낯선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들을 이주민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31) 담당자는 아직 확정된 2007년 프로그램은 없으나 다만 거동이 불편한 사할린 동포 노인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연수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4시 30분.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svc/link/edu/view.asp?seq=5055&s=&q=&gotopage=16&vnum=4912>(접속일: 2007. 2. 22)

33) 순창공공도서관 평생교육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5시.

34) <공공도서관 한글공부방 수료식 가져>, 순창신문 2004년 12월 29일, <군 교육청 국제결혼 가정세대 위한 평생교

다. 정보화교육

이번 조사에는 이주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들이 첨단 정보사회인 우리사회에 이주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의 일부로 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용법, 컴퓨터 조립법, 인터넷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주민에게 있어 인터넷은 떠나온 고국과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듣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 중앙도서관은 2002년 실시된 '외국인 한글문화교실'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개척을 위해 필요하다며 컴퓨터 조립과 하드웨어에 대한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외국인 컴퓨터교실'을 열게 되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도서관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³⁵⁾

그리고 나주공공도서관의 '외국인 한국문화교실'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중 3회의 수업에서 인터넷 사용법과 정보검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컴퓨터공학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석사출신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라. 이동도서관

장시간 노동,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통하지 않는 언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동도서관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인 공공도서관들 중 상당수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용층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동도서관은 주로 장애인 시설, 시/군/구의 외곽 지역,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지만 장서나 서비스 면에 있어 이주민을 봉사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도서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이주민 언어 장서

앞에서 살펴본 외국 도서관들의 사례나 뒤에서 살펴보게 될 국내 민간도서관의 사례와 달리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에서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주민 언어와 한국어로 된 다중언어 도서 역시 전혀 소장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다른 공공도서관들 중 일부는 지역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소장하고 있는 영어소설, 영어동화책, 일본어 도서 등을 영어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 프로그램 운영), 순창신문 2006년 4월 13일.

35) 인천 중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4시 00분. <컬쳐 & 라이프 - 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인천일보 2003년 5월 26일.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활동지역인 서울 이태원 지역을 봉사지역으로 삼고 있는 용산도서관이었다. 용산도서관은 지역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해 어린이실에 1천여권 규모의 영어 동화책 장서를 구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자녀의 동화책을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이 도서관 고객이 되면서 한글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2007년 5월부터는 한글교실이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비록 영어 동화책에 국한된 측면은 있지만 이 사례는 이주민 언어 장서의 구비가 이주민들을 도서관 고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써 이주민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도서관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³⁶⁾

바. 기타

농어촌 거주 이주민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들 중 하나는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³⁷⁾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평생교육관에서는 이주민들의 한글교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전용 승합차를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었고³⁸⁾ 인제도서관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한글교실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한해 학교 통학차량을 결혼이주여성 전용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었다.³⁹⁾

이주민들의 도서관 내 한국어 장서 이용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이주민들의 한글수준이 낮아 한국어 장서의 이용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었지만 일부 이주민들은 한국어 장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한국계 러시아인 또는 조선족 중국인인 경우이거나 한글교실을 오래 다니면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민들이었는데 비교적 읽기가 쉬운 한국어 동화책이나 어학교재 등을 주로 대출하였다. 다른 이주민들은 한글교실이나 문화교실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학령기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로 된 어린이 책을 대출하는 경우로 나타났다.⁴⁰⁾⁴¹⁾⁴²⁾

36) 용산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5. 10 오후 3시.

37) 군의 여러 면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읍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 오지 않는 버스 시간을 맞춰야 하며 만일 버스를 놓치게 되면 도서관에 오거나 집에 돌아가는 일이 난감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38) 고흥평생교육관에서는 읍 외의 면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버스를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타 지역보다 이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39) 인제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6. 8 오후 2시 00분.

40) 나주공공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7. 2. 28 오전 11시 00분 - 11시 30분, 나주공공도서관 사무실.

41) 목포공공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7. 2. 28 오후 1시 30분 - 2시 00분, 목포공공도서관 사무실.

42) 장흥공공도서관 평생교육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2007. 2. 9 오후 5시 30분.

2.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앞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이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출발하였다. 말이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이국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확대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에서는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만들고 그들이 쉬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 정착 뿐 아니라 모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드림도서관(인천시 가좌동),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꼬마도서관(경기도 부천),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민들레 도서관(부산시 전포동),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이동도서관(대전시 대화동) 등이 민간도서관 차원에서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 선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대구시 성서동)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민간도서관의 이주민대상 정보서비스 현황

연번	도서관	한글 교실	문화 교실	정보화 교육	이동 도서관	이주민 언어 장서	목록 DB구축	비고
1	드림도서관	○	○	○		3000여권 장서(방글라데시/인니/베트남/헝디/러시아/몽골/태국 등)와 5백여편 영상물	한글음역하여 DB(도서관리회사 프로그램)	노동상담, 무료진료, 나눔장터, PC교육장, 이주민 컴퓨터, 영화/연극 공연장 등
2	꼬마도서관	○	○		○	4000여권(스리랑카/몽골/베트남/네팔/필리핀/방글라데시/러시아/태국/영어 등)	한글음역하여 DB(도서관용 책꽂이 프로그램)	노동상담, 의료상담, 이주민 컴퓨터 등. 방문대출 제공
3	민들레도서관	○	○			300여권(중국/캄보디아/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 등의 그림책과 동화책, 신화 중심)	수기(국내서는 도서대여점 프로그램으로 DB)	이주노동자 상담, 무료진료 등. 국내 장서는 700여권 소장.
4	외노모임 이동도서관	○	○		○	300여권의 장서(인도네시아 도서 100여권을 3부씩 구입)와 약간의 비디오 자료	수기	노동상담, 취업알선, 무료진료, 체육활동 등
5	외국인노동자 도서관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DB	이주민 서비스 준비 중

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드림도서관⁴³⁾

인천시 가좌동 공단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드림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2001년 이주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권리와 인권보장,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노동 및 생활 상담, 한글과 컴퓨터, 미술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무료진료, 나눔장터, 기타 문화활동을 펼쳐왔다. 이 단체의 활동가와 책을 좋아하는 이주민간의 개인적 접촉에서 이주민 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름다운 가게',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등의 지원, 독지가의 공간 무상임대, 이 단체의 후원회비 등으로 2004년 12월에 드림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⁴⁴⁾

현재 인근 지역에는 스리랑카와 인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태국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 출신 이주민들도 거주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현재 3천여권의 장서와 5백여편의 영상물 확보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와 인권, 아동서적 등의 한국어 장서 외에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힌디어, 우르드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소장 외국자료는 주로 소설, 시, 수필 등 문학 외에 컴퓨터, 언어교육을 비롯한 실용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잡류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구입은 주로 신뢰관계가 있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나 국내 지인을 통해 현지인과 연결하여 구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러시아어 자료는 한국 내 출판사의 도움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어의 경우는 한국외대 인도네시아학과의 지원을 받아 구입을 하였다. 자료구입 과정에서는 귀국 후 정착에 도움이 될 자료, 언어습득 등 실용적 도움을 줄 자료, 이주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전집류가 아닌 자료 등과 같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볍게 가벼운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서 외에도 영상자료나 만화자료들로 구비하려고 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들은 '북코리아닷컴'이라는 도서유통 회사에서 배포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DB로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영어 외의 외국 자료들은 프로그램에서 언어지원이 되지 않아 한글로 음역하여 입력하는 등 목록 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 이용은 관내에서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나 대출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 비용은 없으며 현재 1주일에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임금이나 일자리 등 노동상담을 하러 왔다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한다. 한국어자료는 별로 이용되지 않으며 주로 자국어로 된 자료를 대출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옆 컴퓨터 실습실에서는 무료 인터넷

43) 드림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6. 11. 10 오전 11시-12시, 드림도서관.

44) <'아름다운 건설' 정복균 사장,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기부>,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15일, 드림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migrant114.org>) 2007년 2월 23일 접속.

접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주민들은 주로 모국의 소식을 알고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영상시설을 갖춘 소극장을 통해서도 영화상영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 업무는 상근자 4명이 맡고 있지만 모두 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서관 일을 보고 있다. 자체적인 도서관 운영예산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도서관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과 도서관 운영과 자료 상호대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⁴⁵⁾

나.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꼬마도서관⁴⁶⁾

2000년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이하 문화연대)는 2004년에 사무실을 경기도 부천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⁴⁷⁾ 문화연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과 다양한 문화간의 융화를 목표로 노동상담, 의료상담, 한글교육, 각종 문화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2005년 9월부터 도서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⁴⁸⁾ 현재 부천지역에는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약 2만명 정도의 비교적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작업장에 대한 방문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역 인근에 8평 규모의 도서관을 개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랑방'을 제공하고 있다.

꼬마도서관의 자료는 약 4천여권 정도인데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러시아어, 태국, 한국어 등으로 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주제는 주로 문학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중심이다. 이 자료들은 이 단체와 친분이 있는 이주노동자 중에서 모국으로 귀국한 사람에게 기존 도서목록을 보내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타 시민단체 활동가가 국제회의 참석차 동남아 지역으로 갈 경우에 부탁을 해서 현지에서 인기가 좋은 도서 등을 구입해서 오는 방법으로 입수되고 있다.

도서관 자료들은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책꽃이'를 통해 DB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는 동남아 지역 언어로 된 자료여서 목록 구축에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임시방편으로 그 언어권 출신 노동자에게 발음을 부탁하여 한국어로 음역하여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자료열람과 대출 이외의 인터넷

45)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상호대차가 지원되지 않아 수기(手記)를 통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고 한다.

46) 꼬마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6. 11. 10 오전 2시-3시, 꼬마도서관.

47)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http://happylog.naver.com/asiansori.do>), 2007년 2월 23일 접속.

48) <외국인 노동자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경인일보 2005년 8월 10일.

검색 등 다른 정보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서관 업무는 담당자 1명이 맡고 있지만 문화연대의 고유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설립 초기에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후원회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근 공공도서관이나 타 민간도서관과의 협력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주노동자 언론로 된 장서를 가진 단체와의 협력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목록 교환 등 여건만 된다면 상호대차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민들레 도서관⁴⁹⁾

부산시 전포동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들이 모여 2003년에 결성한 시민단체이다. 결성 이후 이주노동자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아시아와 친구하기>과 이주노동자 상담, 한국어교육, 무료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이 단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및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이해를 드높이고자 이 단체 사무실 내 독립된 공간에 아시아인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민들레 도서관'을 2006년 9월 개관하였다.⁵⁰⁾

현재 이 도서관에는 부산지역의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네팔, 스리랑카,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들도 방문하고 있다. 도서관은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다문화 가정 모임의 한글교실이 열리는 목요일과 이주노동자들이 근무를 쉬는 일요일에 도서관 이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별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이 있는 날도 도서관 이용이 빈번한 편이다.

이 도서관은 평화와 인권 등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서 700여권과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출판된 그림책과 동화책, 신화, 일반도서 약 300여권 등 총 1천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 장서는 씬지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예산지원을 통해 구입된 도서와 회원이나 활동가들의 기증으로 마련되었으며, 외국 장서는 도서관쪽에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 단체와 친분이 있는 이주민들이 모국방문 후 돌아오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 한국에서 국제인권운동을 하다가 현지에 유학을 간 활동가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가 도서를 선정, 구입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49) 민들레 도서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7. 2. 1 오전 11시-12시, 민들레 도서관.

50) 한편 이 도서관은 부산일보사와 부산시교육청, (사)법국민독서운동본부에서 부산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인 '씬지도서관' 23호점으로 개관되어 위 기관과 단체로부터 도서구입, 도서관 시설 구비에 지원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족 오세요' 씬지도서관 23호점 개관>, 부산일보 2006년 9월 8일.

이 도서관의 장서들은 대부분 도서대여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DB를 구축하였는데, 베트남 등 외국도서들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에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도서의 대출을 위해서는 도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가입비 1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일상적인 도서대출 외에 민들레 도서관에서는 아시아인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각 국 동화와 신화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쇼인 '빛그림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영화 프로그램, 대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⁵¹⁾

현재 이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책마을 등 소규모 민간도서관 등과 조금씩 협력을 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등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도서관의 업무는 관장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 단체의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공공 보조금, 그리고 씬지도서관 지정으로 인한 한시적인 교육청의 지원 등으로 마련되고 있다.

라.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이동도서관⁵²⁾⁵³⁾

대전광역시 대전 1, 2공단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이하 외노모임)은 1994년 이주노동자 선교를 목적으로 '빈들교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이주노동자 지원 선교단체였다가 현재는 직접적 선교를 지양하고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이주노동자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외노모임은 지금까지 노동상담, 취업알선, 무료진료, 한국어 및 컴퓨터 교실, 스포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왔는데, 기존 사업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지적요구를 충족시키고 귀환 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대전과 인근지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 이동도서관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과거 이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였으나 최근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스리랑카, 중국, 태국, 캄보디아 출신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동도서관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왔으나 앞으로 대상 국가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이 이동도서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도서 100여권을 3부씩 구입하여 총 300권의 장서와 약간의 비디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장서들의 주제는 주로 교양서적, 종교, 건강, 언어, 문화, 정치 등이며 자료의 입수는 외노모임에서 개괄적인 주제를 제시하면 이주노동자가 모국 방문 후 오는 길에 구입하거나 인근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탁하거나 현지의 한국 선교사가 입국

51) "아시아평화인권연대 2007년 사업계획", 함께하는 세상, 제15호(2007.1), pp.12-14.

52)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자와의 인터뷰, 2007. 2. 7 오전 11시-12시,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 사무실.

53) 대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 홈페이지(<http://cafe.daum.net/daffi>). 2007년 1월 20일 접속.

하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현재 해당 외국어 전공 대학교수에게 선정을 부탁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구입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양도서 목록을 입수하여 자료구입에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입수된 장서들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 배포되며 대출에 대한 기록은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 도서의 대출을 위해서는 도서 회원카드를 작성해야 가능한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회비 1만원 또는 책 1권 대출시 1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외노모임의 이동도서관 봉사에는 이 모임의 활동가 2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동도서관 봉사는 외노모임 업무용으로도 이용되는 승합차 2대를 통해 사전에 소장자료 리스트를 지역의 이주민들에게 배포한 후 자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근무지나 거주지로 가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주중에는 담당자가,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가 순회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아니면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점이 되는 사람을 통해 대리로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공공도서관이나 다른 기관 등의 지원이나 협력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외노모임의 이동도서관에 도서를 대여하는 방식의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들의 모금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시나 구청에서 지원은 받지 않고 있었다.

마.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 선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⁵⁴⁾

대구광역시 성서공단 지역에 위치한 '꿈을 이루는 교회'는 지금까지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수행해오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도서관인 '그루터기 도서관'을 2006년 4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 교회는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성서공단 지역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 선교회'를 조직하여 2006년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도서관'의 개관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지역에는 약 5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키스탄 출신이 약 500명 정도이며 그 외에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출신 이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 교회에서는 우선 파키스탄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는 규모가 영세한 개별 민간이나 종교단체가 전체 이주민들을 서비스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첫 출발을 위해서는 비교적 지적 요구가 높다고 판단한 파키스탄 이주민이 적합하다고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이주민 대상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점차 다른 국가로 서비스 범위를 들여 앞으로 1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각 국별 5천권의 장서를 구비하여 성서공단 내 외국인

54) 꿈을 이루는 교회 담임목사와의 인터뷰, 2007. 2. 6 오후 2시-3시 30분, 꿈을 이루는 교회 사무실.

도서관 타운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관 준비 중이어서 아직 이주민 언어로 된 장서는 구비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약 6개월 정도에 걸쳐 현지에 있는 선교사 지인들과 메일 연락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에는 한글로 된 7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대출 외에 이 도서관에서는 현재 교회의 3-4평 규모의 방 2곳을 10대의 컴퓨터가 들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 공간으로 개조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파키스탄 통역 자원봉사자를 통한 통역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사회와 모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생활정보지 제작, 파키스탄 및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제작 등의 계획으로 있다.

도서관 전산화와 관련하여 현재 어린이 도서관 장서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DB로 구축되어 있으나 대출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주민 도서관 개관 준비업무는 담임목사, 전도사, 강도사, 사무간사 등 4인이 어린이 도서관 및 교회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주변의 공공도서관이나 민간 이주민 도서관간의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지역의 병원과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고충을 덜어줄 예정으로 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도서관 운영 예산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현금과 개인적 후원,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의 지원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항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구청과 공단 등을 통한 제도적 어려움을 들고 있었다.⁵⁵⁾

IV. 현 단계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한계

앞 장에서 국내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내 공공도서관계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이용자로 인식하고 먼저 손을 내민 일부 공공도서관들의 노력은 대단히 선구적인 것으로 기록될만하다. 그리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생길 수 밖에 없는 빈약한 재정과 한정된 인력, 제도화의 한계 등 어려운 제약을 뚫고 이주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을 설립하여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노력은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이처럼 위의 도서관들이 국내 도서관계에 이주민 서비스의 초석을 세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55) 그루터기 어린이 도서관을 관찰구청에 문고로 등록한 후 현황파악을 위한 의무만 있고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성서공단에서 공단부지임을 내세워 교회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단계의 이주민 서비스는 아직 국내 도서관계가 보다 발전된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현재의 이주민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공공도서관 영역의 한계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한글교실과 문화교실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서관의 정체성에 더욱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주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 한글교실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영역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을 위한 장서관발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한글교실과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도서관의 장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도서관에서 아직 적극적인 이주민을 위한 장서관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는 지역의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장서관입을 의도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국어 자료에 목말라 있는 이주민들, 그것도 영어와 일어 사용자들만이 자신을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 영어동화책, 어학교재 등을 이용할 뿐이었다. 앞에서 이주민 정보서비스에 있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구미 국가 공공도서관에서는 주요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된 자료들과 이주민언어와 현지 언어가 병기되어 있는 다중언어(multilingual) 자료가 이주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민 언어 장서관입과 같은 적극적인 장서관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베트남어에 능통한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한글교재를 개발한 고흥 평생교육관의 사례처럼 효과적인 한글교육을 위해서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한글교재, 생활정보, 도서관 이용법 등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⁵⁶⁾ 그리고 이주민들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학교재나 동화책, 일반도서관의 구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도서관 셔틀버스 등과 같이 이주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제공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장시간의 노동이나 교통수단의 한계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서관 봉사면적이 넓고 교통편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실제 일부 도서

56) 이를 위해서는 해당언어 구사자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관내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방식 외에도 주요 대학의 해당 외국어 학과나 대사관,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관의 한글교실이나 문화교실 참여자가 대부분 도서관이 위치한 읍/면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도서관과 정보에 대한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외국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과 같은 방법들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새로이 주요 이주민 언어 장서와 한글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도서를 추가하고 주요 이주민 거주지역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지역을 정류장으로 포함시켜 정기적인 방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⁵⁷⁾⁵⁸⁾ 이동도서관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주민을 위한 장서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장서를 준비하여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면단위 지역이나 공단지역의 공공기관에 정기적으로 비치시키는 순회문고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 고흥평생교육관의 사례와 같이 도서관 예산으로 승합차나 미니버스 등을 임대하여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도서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조사대상 공공도서관들은 이주민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이주민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이주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떠난 모국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전화비나 인터넷 비용 등 만만찮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내에 설치된 열람용 PC나 이동도서관 내 PC에 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언어지원 키보드, 화상키보드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언어지원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 헤드셋, 화상채팅용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여 인터넷 검색, 메일, (화상)채팅, 인터넷 전화, 블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접근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이주민 중 상당수는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검색 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므로 인천중앙도서관과 나주공공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이주민의 정보마인드와 정보리터러시 개발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함께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담당 직원들의 이주민 서비스 전문성도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나 열람업무 담당자가 이주민 서비스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국내 도서관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 차원에서는 단순히 업무의 하나로 담당자를 지정했을 뿐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고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중언어 구사 가능한 도서관 직원의 확보나 주요 이주민 출신의

57) 이동도서관 차량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노트북 PC를 제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8) 조용완,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도서관문화, 제48권 제4호(2007. 4), pp43-49.

채용까지는 아직 어렵더라도 이주민을 이용자로 맞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나름의 준비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간단한 인사말이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문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안내표지 등에도 주요 이주민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의 준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민간도서관 영역의 한계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는 모(母)기관인 시민/종교단체가 실시해온 한국어 교육, 노동 및 생활 고충 상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등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장서 뿐만 아니라 이주민 언어로 된 장서의 제공,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등 공공도서관의 그것에 비해 한단계 진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민간도서관의 서비스에는 시민/종교단체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모 단체의 상황변화에 따라 '부차적 사업'인 이주민 도서관은 얼마든지 서비스가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어려움이 상존한 실정이다. 또한 시민/종교단체의 재정형편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료구입과 정리,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할 수 없고 도서관 분야에 대해 모르는 활동가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현재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도서관 영역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언어 장서구입이 상당히 임의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간도서관의 장서구입은 대부분 모 단체의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이주노동자 중에서 모국으로 귀국했거나 일시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을 부탁하는 방식이나 이주민 국가를 방문하는 국내 활동가나 선교사, 유학생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별 민간단체가 자력으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를 입수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에서 민간도서관들은 구입대행자들에게 '알아서' 적당한 자료를 구입해 달라거나 기존 목록과 중복되지 않는 자료를 구입해 달라거나 '소설책이나 쉽고 편하게 읽을 만한 책'을 구입해 달라는 방식의 교육책을 취하고 있어 체계적인 장서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 도서관 차원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그리고 국내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민간도서관의 자료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체계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대상 5개 도서관 중 꼬마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서대여점 프로그램이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목록을 DB화하고 있었고 한 곳은 아직 수기로 장부를 작성한 곳도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 언어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4개 민간도서관 모두는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언어에 대한 입력에 있어서 언어지원이 되지 않아 한글로 음역하여 DB화하거나 DB화를 포기하고 수기하여 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도서관과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유니코드(unicode) 다국어 처리가 불가능한 도서관리 소프트웨어로 처리된 민간도서관의 자료정리 절

차는 자료입력의 표준 지침을 잘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도서관들이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동남아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언어들이 유니코드 기반으로 지원되는 KOLAS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후 목록입력 과정도 공공도서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입력 편의를 제공받거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에게 목록입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도서관 차원의 상호협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펼치는 민간도서관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지역에서 서비스를 벌이고 있었는데, 공단지역에는 여러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혼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민간도서관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에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고 이주노동자들 역시 한 민간도서관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모국어 자료의 양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민간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장서의 목록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고 상호대차를 위한 협약이 맺어진다면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고 다양한 자신의 모국어 장서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언어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다국어 기반과 표준화된 목록구축이 각 도서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간 도서관끼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상호대차를 위한 협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⁵⁹⁾

끝으로 민간도서관을 담당할 전임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전임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적은 후원회비와 간헐적인 시민단체 지원금만으로는 모 단체 활동가들의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이나 졸업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어도 목록입력과 파생되는 각종 장비작업, 그리고 대출반납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나름의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국내의 일부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아직 서비스가 체계적이

59) 민간 도서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과정에서 그들은 이주민 언어 장서의 상호대차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목록 DB 구축과 같은 환경구축만 된다면 실시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못하고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엄연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었기에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발맞춘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이주민 대상 정보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제공되다보니 현 단계에서는 많은 한계들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들은 이동도서관 또는 교통수단, 모국어 장서 입수, 표준화와 다국어를 지원하는 목록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과 이주민을 위한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이주민 서비스 전임인력, 상호대차 등 상호협력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도서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조차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사회 내 정보격차 해소와 이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사회 내부에서도 이주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각급 도서관들도 이주민이 겪고 있는 정보소의 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도서관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주민 서비스 관련 도서관 실태조사와 함께 이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이주민 언어 장서구입을 위한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가도서관간의 자료교환 과정에서 타 도서관의 이주민 언어 장서구입을 위한 방안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이주민 언어 장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간여하여 목록구축과정에서 표준적 절차를 지원하고 유니코드 기반의 다국어 입력과 검색이 지원되는 검색시스템의 개발, 보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이주민 언어 소장 도서관간 상호대차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도서관들이 벌이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이동도서관이나 교통수단의 지원, 장서구입과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들이 이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노력과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이주민 정보서비스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